

매일 미사 전례 독서

2011년 1월

한국 천주교 주교회의

신심 미사 하늘의 문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

제1독서 <나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>

□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

21,1-5나

¹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.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,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. ²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,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,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

³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“보라,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.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,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, 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. 다시는 죽음이 없고, 다시는 슬픔도, 울부짖음도,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.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.”

⁵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“보라,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22(121),1-2.3-4.8-9(◎ 1 참조)

<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.>

◎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세.

<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.>

○ “주님의 집에 가자!” 할 때, 나는 몹시 기뻐노라. 예루살렘아,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. ◎

○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, 견고하게 세워졌네.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.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.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. ◎

○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. “너에게 평화가 있기를!”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동정 마리아 님, 하와가 잠갔던 낙원의 문을 어머니가 열어 주셨나이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신랑이 온다.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5, 1-13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¹ “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. ²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, 다섯은 슬기로웠다. ³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,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.

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. ⁵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. ⁶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. ‘신랑이 온다.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.’ ⁷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, ⁸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‘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.’ 하고 청하였다. ⁹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‘안 된다.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,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.’ 하고 대답하였다.

¹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.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, 문은 닫혔다. ¹¹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, ‘주인님, 주인님, 문을 열어 주십시오.’ 하고 청하였지만, ¹² 그는 ‘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.’ 하고 대답하였다.

¹³ 그러니 깨어 있어라.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일 토요일
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
(세계 평화의 날)

제1독서 <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,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.>

▮ 민수기의 말씀입니다. 6,22-27

²²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. ²³ “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. ‘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.

²⁴ ‘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,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. ²⁵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,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. ²⁶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,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.”

²⁷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,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67(66),2-3.5.6과 8(◎ 2ㄱ)

◎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.

○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.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.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,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. ◎

○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,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,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. ◎

○ 하느님,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.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. ◎

제2독서 <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,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.>

▮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. 4,4-7

형제 여러분, ⁴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,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. ⁵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,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⁶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,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

보내 주셨습니다. 그 영계서 “아빠! 아버지!”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. ⁷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.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히브 1,1-2ㄱ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,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. 여드레가 차서,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.>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16-21

그때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¹⁶ 서둘러 가서,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.

¹⁷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,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. ¹⁸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. ¹⁹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. ²⁰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.

²¹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,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.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일 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

제1독서 <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.>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60,1-6

예루살렘아, ¹ 일어나 비추어라. 너의 빛이 왔다.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. ² 자 보라, 어둠이 땅을 덮고,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.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,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.

³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,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. ⁴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.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.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,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.

⁵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,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.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,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. ⁶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,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.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,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72(71),1-2,7-8,10-11,12-13(◎ 11 참조)

◎ 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.

○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,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.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,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,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.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,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. ◎

○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,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. 약한 이,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,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. ◎

제2독서 <지금은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.>

▣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.

3,2,3-5-6

형제 여러분, ²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. ³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. ⁵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,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. ⁶ 곧,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, 공동 상속자가 되고, 한 몸의 지체가 되며,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2,2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, 경배하러 왔노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1-12

¹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.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, ² “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?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³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. ⁴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,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.

⁵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. “유다 베들레헬입니다.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. ⁶ ‘유다 땅 베들레헬아,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.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,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.’”

⁷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, ⁸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. “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.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. 나도

가서 경배하겠소.”

⁹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.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,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. ¹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. ¹¹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,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. 또 보물 상자를 열고,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.

¹²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,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3일 주님 공현 후 월요일

제1독서 〈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.〉

□□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3, 22—4, 6

사랑하는 여러분, ²²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.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.

²³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.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,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. ²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,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.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,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.

^{4,1} 사랑하는 여러분,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,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.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. ²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. ³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. 그것은 ‘그리스도의 적’의 영입니다.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,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.

⁴ 자녀 여러분,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,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.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

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. ⁵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.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,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. ⁶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.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,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,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,7-8.10-11(◎ 8ㄴ)

- ◎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주리라.
-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.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내 아들,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. 나에게 청하여라.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,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.” ◎
- 임금들아, 이제는 깨달아라. 세상 통치자들아, 경고를 받아들여라. 경외하며 주님 섬기고, 떨며 그분 발에 입 맞추어라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23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>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4,12-17.23-25

그때에 ¹²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. ¹³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,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.

¹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. ¹⁵ “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, 바다로 가는 길, 요르단 건너편, 이민족들의 갈릴래아, ¹⁶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.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.”

¹⁷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“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”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.

²³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,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. ²⁴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.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,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.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. ²⁵ 그러자 갈릴래아, 데카폴리스, 예루살렘, 유다,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4일 주님 공현 후 화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은 사랑입니다.〉

□□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4, 7-10

⁷ 사랑하는 여러분, 서로 사랑합시다.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, 하느님을 압니다. 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.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.

⁹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곧,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,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. ¹⁰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,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,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72(71), 1-2, 3-4ㄴ, 7-8(◎ 11 참조)

◎ 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.

○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,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. 그가 가련한 백성의 권리를 보살피고, 불쌍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. ◎

-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,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.
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,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.
- ◎ 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.

복음 환호송

루카 4,18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빵을 많게 하신 기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로 나타나셨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6,34-44

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,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. ³⁵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,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. “여기는 외딴곳이고,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. ³⁶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,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.”

³⁷ 예수님께서 “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” 하고 이르시니, 제자들은 “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³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“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? 가서 보아라.” 하고 이르셨다.

그들이 알아보고서, “빵 다섯 개,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 ³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,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. ⁴⁰ 그래서 사람들은 백 명씩 또는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.

⁴¹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,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,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.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. ⁴²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. ⁴³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. ⁴⁴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 명이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5일 주님 공현 후 수요일

제1독서 〈우리가 서로 사랑하면,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.〉

□□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4, 11-18

¹¹ 사랑하는 여러분,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,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. ¹²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,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,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.

¹³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. 우리는 이 사실로,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. ¹⁴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, 또 증언합니다.

¹⁵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,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,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. ¹⁶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, 또 믿게 되었습니다.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.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,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.

¹⁷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,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,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. ¹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.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.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.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72(71), 1-2, 10-11, 12-13 (◎ 11 참조)

◎ 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.

○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-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,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.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,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.
- ◎ 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.
-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,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. 약한 이,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,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1티모 3,16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신 그리스도님, 영광을 누리소서.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리스도님, 영광을 누리소서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다.>

✦ 마르코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6,45-52

오천 명을 배불리 먹으신 뒤, ⁴⁵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,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. ⁴⁶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,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.

⁴⁷ 저녁이 되었을 때,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, 예수님께서서는 혼자 물에 계셨다. ⁴⁸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, 예수님께서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.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.

⁴⁹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,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. ⁵⁰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.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용기를 내어라. 나다. 두려워하지 마라.” ⁵¹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, 바람이 멎었다.

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. ⁵²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,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6일 주님 공현 후 목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.〉

▣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4, 19—5, 4

사랑하는 여러분, ¹⁹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. ²⁰ 누가 “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.”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,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.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. ²¹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.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^{5,1}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.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. ²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,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

³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. 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.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72(71), 1-2, 14와 15ㄷㄹ, 17(◎ 11 참조)

◎ 주님,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.

○ 하느님,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,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,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. ◎

○ 그의 눈에는 그들의 피가 소중하기에, 그는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이다.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, 날마다 축복하게 하소서. ◎

○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,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.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,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4, 18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4, 14-22ㄱ

그때에 ¹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,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. 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.

¹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,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.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, ¹⁷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.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,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.

¹⁸ “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,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,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,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, ¹⁹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.”

²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,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.

²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“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.” ²²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,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7일 주님 공현 후 금요일

제1독서 <성령과 물과 피>

▮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5, 5-13

사랑하는 여러분, ⁵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?

⁶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물만이 아니라,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.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.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. ⁷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. ⁸ 성령과 물과 피인데,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

⁹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,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?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. ¹⁰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.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.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¹¹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.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,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 ¹²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,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.

¹³ 내가 여러분에게,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,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7,12-13.14-15.19-20(◎ 12ㄱ)

◎ 예루살렘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○ 예루살렘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시온아,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.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,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. ◎

○ 그분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,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.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,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. ◎

○ 그분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,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.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?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2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곧 그의 나병이 가졌다.>

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12-16

¹²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,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. 그는 예수님을 보자,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. “주님!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” ¹³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. “내가 하고자 하니, 깨끗하게 되어라.” 그러자 곧 나병이 가졌다.

¹⁴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, “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,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,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.” 하셨다.

¹⁵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,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 왔다. ¹⁶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8일

주님 공현 후 토요일

제1독서 <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하느님께서 들어 주신다.>

▣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.

5,14-21

사랑하는 여러분, ¹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.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,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. ¹⁵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,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.

¹⁶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면,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.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. 이는 죽을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. 죽을죄가 있는데,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¹⁷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. 그러나 죽을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.

¹⁸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.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 주시어,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. ¹⁹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, 온 세상은 악마의

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.²⁰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,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.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,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. 이분께서 참하느님이시며, 영원한 생명이십니다.

²¹ 자녀 여러분, 우상을 조심하십시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9,1-2.3-4.5-6ㄱ과 9ㄴ(◎ 4ㄱ)

◎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.

○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.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.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,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. ◎

○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, 손북 치고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.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,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. ◎

○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,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.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.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16

◎ 알렐루야.

○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.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신랑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22-30

그때에²²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,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.²³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물이 많아,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.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.²⁴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.

²⁵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.²⁶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,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, 바로

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,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.”

²⁷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. “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. ²⁸ ‘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.’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,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.

²⁹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.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,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.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. ³⁰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, 나는 작아져야 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9일 주일 주님 세례 축일

제1독서 <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.>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2,1-4.6-7

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¹ “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.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, 내가 선택한 이, 내 마음에 드는 이다.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,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. ²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,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. ³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,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.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. ⁴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,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,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.

⁶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,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.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,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,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, ⁷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,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,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9(28),1ㄱ과 2,3ㄱ과 4,3ㄴ과 9ㄷ-10(◎ 11ㄴ)

◎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.

○ 하느님의 아들들아, 주님께 드려라.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.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. ◎

○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물고,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.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,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. ◎

○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.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. “영광이여!”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.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. ◎

제2독서 <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.>

▮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10,34-38

그 무렵 ³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. “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.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, ³⁵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.

³⁶ 하느님께서서 예수 그리스도,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

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³⁷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, ³⁸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.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,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.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르 9,7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.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,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13-17

¹³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. ¹⁴ 그러나 요한은 “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,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?”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.

¹⁵ 예수님께서서는 “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.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.” 하고 대답하셨다.

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. ¹⁶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.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.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. ¹⁷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 “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,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0일 연중 제1주간 월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.

1,1-6

¹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, ²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,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.

³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,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,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.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,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. ⁴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,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.

⁵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, “너는 내 아들.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.”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? 또 “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,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.”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? ⁶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“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7(96), 1과 2ㄴ, 6과 7ㄴ, 9(◎ 7ㄴ 참조)

◎ 모든 천사들이 하느님께 경배드리네.

○ 주님은 임금이다.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.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. ◎

○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,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.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드리네. ◎

○ 주님,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이신 분,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이시나이다. ◎

복음 환호송

마르 1,15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,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14-20

¹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,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¹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.”

¹⁶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,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. 그들은 어부였다. ¹⁷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나를 따라오너라.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.” ¹⁸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.

¹⁹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,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, ²⁰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.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1일

연중 제1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하느님께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2, 5-12

⁵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,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. ⁶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.

“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?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? ⁷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시고, ⁸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.”

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,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. ⁹ 그러나 우리는 “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”,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“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”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

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.

¹⁰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,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.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,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¹¹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,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. 그러한 까닭에,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 ¹²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“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,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,2ㄱ과 5.6-7ㄱ.7ㄴ-9(◎ 7ㄱ 참조)

◎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성자께서 다스리게 하셨나이다.

○ 주님, 저희 주님, 온 땅에 당신 이름,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!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?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? ◎

○ 주님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,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.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. ◎

○ 주님은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.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, 들짐승하며,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,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이옵니다. ◎

복음 환호송

1테살 2,1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, 사실 그대로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21ㄴ-28

카파르나움 마을에서, ²¹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, ²²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.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.

²³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, 그가 소리를 지르며 ²⁴ 말하였다. “나자렛 사람 예수님,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

있습니까?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?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.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.”

²⁵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조용히 하여라.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.” 하고 꾸짖으시니, ²⁶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.

²⁷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, “이게 어찌 된 일이냐?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.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.”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. ²⁸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2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

제1독서 〈자비로우신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2, 14-18

¹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,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.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,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, ¹⁵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어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
¹⁶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,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. ¹⁷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.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,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,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 ¹⁸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,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5(104), 1-2.3-4.6-7.8-9(◎ 8ㄴ)

◎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.

○ 주님을 찬송하여라, 그 이름 높이 불러라.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. 그분께 노래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. ◎

- 거룩하신 그 이름 사랑하여라.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.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.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. ◎
-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,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!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,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. ◎
-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,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,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, 이사악에게 내리신 맹세라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0, 27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. 나는 그들을 알고, 그들은 나를 따른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 29-39

그 무렵 ²⁹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,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. ³⁰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,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. ³¹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.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.

³²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,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. ³³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. ³⁴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,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.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.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

³⁵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,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판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. ³⁶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³⁷ 그분을 만나자, “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.” 하고 말하였다.

³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.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.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.” ³⁹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,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3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“오늘”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,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3,7-14

형제 여러분, ⁷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. “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⁸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,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, 반항하던 때처럼. ⁹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,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. ¹⁰ 사십 년 동안 그리하였다.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. ‘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,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.’” ¹¹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. ‘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’”

¹² 형제 여러분,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. ¹³ “오늘”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,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,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. ¹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.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5(94),6-7㉔,7㉕-9,10-11(◎ 7㉔과 8㉕)

◎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.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.

○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.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.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,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,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. ◎

○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. “므리바에서처럼,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,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.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,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.” ◎

○ “사십 년 그 세대에 나는 진저리가 나서 말하였다. ‘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.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.’ 나는 화가 치밀어 맹세하였다. ‘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.’”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2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40-45

그때에 ⁴⁰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.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. “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” ⁴¹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. “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.” ⁴²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.

⁴³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. ⁴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.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,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,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.”

⁴⁵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,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.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4일 연중 제1주간 금요일

제1독서 <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4,1-5,11

형제 여러분, ¹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,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,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니다. ²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. 그 말씀을 귀여겨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.

³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갑니다. 그것은 하느님께서 “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. ‘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’” 하고

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. 안식처는 물론,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⁴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. “하느님께서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.” ⁵ 또 여기에서는, “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” 하였습니다. ¹¹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,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78(77),3과 4ㄱㄷ.6ㄴ-7.8(◎ 7ㄴ 참조)

- ◎ 하느님의 업적을 너희는 잊지 마라.
-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,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.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,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. ◎
- 그들이 일어나서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라 하심이네.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,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, 당신 계명을 지키라 하심이네. ◎
- 고집 부리고 반항하던 세대, 그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심이네. 마음이 흔들렸던 그 세대,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7,16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.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2,1-12

¹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.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, ²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.

³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.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, ⁴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.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,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. ⁵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. “얘야,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.”

⁶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, 마음속으로 의아하게

생각하였다. ⁷ ‘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? 하느님을 모독하는군.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?’

⁸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?” ⁹ 중풍 병자에게 ‘너는 죄를 용서받았다.’ 하고 말하는 것과, ‘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.’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? ¹⁰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.”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. ¹¹ “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.”

¹²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,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.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. “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5일 연중 제1주간 토요일

제1독서 <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4, 12-16

형제 여러분, ¹²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,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,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. ¹³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.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.

¹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.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. 그러니,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. ¹⁵ 우리에게는,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,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,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.

¹⁶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.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,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9(18), 8.9.10.15(◎ 요한 6, 63ㄴ 참조)

- ◎ 주님,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.
-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,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. ◎
-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,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. ◎
-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,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. ◎
- 저의 반석,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,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, 제 마음속 생각,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4, 18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.>

✦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2, 13-17

그때에 ¹³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. 군중이 모두 모여 오자,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. ¹⁴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, 세관에 앉아 있는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. “나를 따라라.”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.

¹⁵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,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.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. ¹⁶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,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. “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?”

¹⁷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,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.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6일 연중 제2주일

제1독서 〈나의 구원이 다다르도록,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.〉

▮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49.3.5-6

³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나의 종이다. 이스라엘아,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.”

⁵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,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,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.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,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.

⁶ 그분께서 말씀하신다. “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,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,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0(39).2ㄱ과 4ㄱ.7-8ㄴ.8ㄷ-9.10(◎ 8ㄴ과 9ㄱ)

◎ 주님, 보소서, 제가 왔나이다.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.

○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, 그분은 나에게 몸을 숙이셨네. 새로운 노래,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. ◎

○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,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.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. 제가 아뢰었나이다. “보소서, 제가 왔나이다.” ◎

○ “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. 주 하느님,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.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.” ◎

○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. 보소서,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. 주님, 당신은 아시나이다. ◎

제2독서 〈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시작입니다.

1.1-3

¹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²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. 곧,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,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

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.

³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요한 1,14-12

◎ 알렐루야.

○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.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보라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.>

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,29-34

그때에 ²⁹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 “보라,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. ³⁰ 저분은, ‘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,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.’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. ³¹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,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.”

³²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. “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. ³³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.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. ‘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,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.’

³⁴ 과연 나는 보았다.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7일 월요일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

제1독서 <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,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5,1-10

¹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,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. 곧,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. ²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,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. ³ 그리고 연약한 탓에,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. ⁴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,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.

⁵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, 그분께 “너는 내 아들.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.”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. ⁶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. “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.”

⁷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,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,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,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. ⁸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,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.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,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, ¹⁰ 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0(109), 1.2.3.4(◎ 4ㄴㄷ)

- ◎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.
-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. “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,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.” ◎
-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. “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.” ◎
- “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. 거룩한 빛, 새벽 품에서, 나는 너를 낳았노라.” ◎
-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. “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.” ◎

복음 환호송

히브 4, 12

- ◎ 알렐루야.
-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,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신랑이 혼인 잔치 손님들과 함께 있다.>

✱ 마르코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2,18-22

그때에 ¹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.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, “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,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

¹⁹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?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. ²⁰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.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.

²¹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깎지 않는다.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댄 새 형짚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. ²²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.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,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.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8일 연중 제2주간 화요일

제1독서 <이 희망은 닳과 같아, 안전하고 견고합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6,10-20

형제 여러분, ¹⁰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,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 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. ¹¹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¹²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,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.

¹³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,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,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, ¹⁴ “정녕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,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¹⁵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. ¹⁶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합니다. 그리고 그

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.

¹⁷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,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. ¹⁸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. 이 두 가지로,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. ¹⁹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과 같아,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. ²⁰ 예수님께서서는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,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1(110), 1-2.4-5.9와 10ㄷ(◎ 5ㄴ 참조)

- ◎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.
- 주님을 찬송하리라. 올곧은 이들의 모임, 그 집회에서,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.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.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. ◎
-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,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.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,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. ◎
-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,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네.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다. 주님 찬양 영원히 이어지네. ◎

복음 환호송

에페 1, 17-18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,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,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,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2, 23-28

²³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.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. ²⁴ 바리사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?”

²⁵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

없어 배가 고팠을 때,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? ²⁶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,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,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?”

²⁷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,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. ²⁸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19일 연중 제2주간 수요일

제1독서 〈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.〉

▣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7.1-3.15-17

형제 여러분, ¹ 멜키체덱은 “살렘 임금”이며 “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”로서, “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” “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.” ² 그리고 아브라함은 “모든 것의 십분의 일”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. 먼저 그의 이름은 ‘정의의 임금’이라는 뜻입니다.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,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. ³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, 족보도 없고,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,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,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.

¹⁵ 멜키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. ¹⁶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,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. ¹⁷ “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.”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0(109), 1.2.3.4(◎ 4ㄴㄷ)

◎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.

○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. “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,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.” ◎

○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뿜치시리이다. “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.” ◎

- “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. 거룩한 빛, 새벽 품에서, 나는 너를 낳았노라.” ◎
-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. “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.”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4,2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?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?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1-6

그때에 ¹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,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. ²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,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.

³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“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.” 하시고, 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?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?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?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?”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. ⁵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.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, “손을 뻗어라.” 하고 말씀하셨다. 그가 손을 뻗자,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.

⁶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0일 연중 제2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7,25—8,6

형제 여러분, ²⁵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.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.

²⁶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.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,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. ²⁷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.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. ²⁸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,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.

^{8,1}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. 곧,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, ²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.

³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.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. ⁴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.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⁵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,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. 하느님께서 “자,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.”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⁶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.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0(39), 7-8ㄴ, 8ㄷ-9.10, 17(◎ 8ㄴ과 9ㄱ 참조)

◎ 주님, 보소서,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.

○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,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.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. 제가 아뢰었나이다. “보소서, 제가 왔나이다.” ◎

○ “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. 주 하느님,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.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.” ◎

○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. 보소서,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.

주님, 당신은 아시나이다. ◎

- 당신을 찾는 이는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리이다. 당신 구원을 열망하는 이는 언제나 외치게 하소서. “주님은 위대하시다.” ◎

복음 환호송

2티모 1,10 참조

◎ 알렐루야.

-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,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더러운 영들은 “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!” 하고 소리 질렀고,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.>

✦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7-12

그때에 ⁷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. 그러자 갈릴래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. 또 유다와 ⁸ 예루살렘,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너편,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. 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 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,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.

¹⁰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,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. ¹¹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, “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!” 하고 소리 질렀다. ¹²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1일 금요일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

제1독서 <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8,6-13

형제 여러분, ⁶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. 더 나은

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. ⁷ 저 첫째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, 다른 계약을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. ⁸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결함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

“보라, 그날이 온다.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. ⁹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.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.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

¹⁰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. 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—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 주고,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리라.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,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. ¹¹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, 아무도 제 형제에게 ‘주님을 알아라.’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.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¹² 나는 그들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,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.”

¹³ 하느님께서서는 “새 계약”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.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85(84), 8과 10.11-12.13-14(◎ 11ㄱ)

◎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리라.

○ 주님,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,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.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,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. ◎

○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,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.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,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. ◎

○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,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.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,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2코린 5, 19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,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시어 함께 지내게 하셨다.>

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3,13-19

그때에 ¹³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,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,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. ¹⁴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.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,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, ¹⁵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.

¹⁶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둘을 세우셨는데,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, ¹⁷ ‘천둥의 아들들’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, ¹⁸ 그리고 안드레아, 필립보, 바르톨로메오, 마태오, 토마스,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, 타대오, 열혈당원 시몬, ¹⁹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2일
연중 제2주간 토요일

제1독서 <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,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9,2-3.11-14

형제 여러분, ²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 빵이 놓여 있었는데, 그곳을 ‘성소’라고 합니다. ³ 둘째 휘장 뒤에는 ‘지성소’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.

¹¹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.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,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¹²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,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.

¹³ 염소와 황소의 피,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, ¹⁴ 하물며 영원한 영을

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,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,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?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47(46), 2-3, 6-7, 8-9(◎ 6)

- ◎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.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.
- 모든 민족들아, 손뼉을 쳐라.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.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, 경외로우신 분,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. ◎
-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.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. 노래하여라, 하느님께 노래하여라. 노래하여라,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. ◎
-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님이시니,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.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.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사도 16, 14ㄴ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,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,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 20-21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²⁰ 집으로 가셨다.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,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. ²¹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.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3일 연중 제3주일

제1독서 〈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.〉

□□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8,23ㄴ—9,3

²³ 옛날에는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,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.

^{9,1}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.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. ²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,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.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, 수확할 때 기뻐하듯,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.

³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, 어깨에 멘 장대와,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,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27(26), 1.4.13-14(◎ 1ㄱ)

◎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이시네.

○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.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?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.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? ◎

○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,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,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,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,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. ◎

○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,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. 주님께 바라라.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. 주님께 바라라. ◎

제2독서 〈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.〉

□□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1,10-13.17

¹⁰ 형제 여러분,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.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.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.

¹¹ 나의 형제 여러분,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. ¹² 다름이 아니라, 여러분이 저마다 “나는 바오로 편이다.”, “나는 아폴로 편이다.”, “나는 케파 편이다.”, “나는 그리스도 편이다.”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.

¹³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?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?

¹⁷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,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.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,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4,23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.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.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4,12-23〈또는 4,12-17〉

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〈 〉 부분을 생략한다.

¹²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. ¹³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,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.

¹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. ¹⁵ “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, 바다로 가는 길, 요르단 건너편, 이민족들의 갈릴래아, ¹⁶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.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.”

¹⁷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“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”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.

〈¹⁸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,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. 그들은 어부였다. ¹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나를 따라오너라.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.” ²⁰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.〉

²¹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, 곧 제베대오의 아들이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. ²²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.

²³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,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,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.〉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4일 월요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

제1독서 〈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.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9, 15, 24-28

형제 여러분, ¹⁵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.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,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

²⁴ 그리스도께서는,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,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.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. ²⁵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,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. ²⁶ 만일 그렇다면,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.

²⁷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,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, ²⁸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.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8(97), 1.2-3ㄴ, 3ㄷ-4.5-6(◎ 1ㄱㄴ)

- ◎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
-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 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-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-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 주님께 환성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-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.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. 쇠나팔, 뿔 나팔 소리에 맞춰,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. ◎

복음 환호송

2티모 1,10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,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사탄은 끝장나게 될 것이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.22-30

그때에 ²²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, “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.” 고도 하고, “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.” 고도 하였다.

²³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 “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? ²⁴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. ²⁵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. ²⁶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. ²⁷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,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.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.

²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. ²⁹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.” ³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“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.”고 말하였기 때문이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5일 화요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

제1독서 <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,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.>

□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

22,3-16<또는 9,1-22>

그 무렵 바오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. ³ “나는 유다 사람입니다.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, 가말리엘 문하에서 조상 전래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.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,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. ⁴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, 남자,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. ⁵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게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.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.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⁶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,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. ⁷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. 그리고 ‘사울아, 사울아, 왜 나를 박해하느냐?’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

⁸ 내가 ‘주님, 주님은 누구십니까?’ 하고 여쭙자,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. ‘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.’

⁹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,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.

¹⁰ ‘주님,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?’ 하고 내가 여쭙었더니,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. ‘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.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,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 줄 것이다.’

¹¹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,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. ¹²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,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. ¹³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, ‘사울 형제, 눈을 뜨십시오.’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.

¹⁴ 그때에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. ‘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,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뽑고 또 그분의 입에서

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. ¹⁵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. ¹⁶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?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,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.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17(116), 1.2(◎ 마르 16, 15)

◎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.

○ 주님을 찬양하여라, 모든 민족들아. 주님을 찬미하여라, 모든 겨레들아. ◎

○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.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15, 16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, 가서 열매를 맺어라.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16, 15-18

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¹⁵ 이르셨다.

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 ¹⁶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,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. ¹⁷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. 곧,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, 새로운 언어들에 말하며, ¹⁸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,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6일 수요일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

제1독서 <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.>

▮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.

1, 1-8

¹ 하느님의 뜻에 따라,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, ²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.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.

³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,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⁴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,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. ⁵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.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,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.

⁶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.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. ⁷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,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. ⁸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,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.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또는 〈나 바오로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〉

▮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.

1,1-5

¹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,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.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,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, ²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.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. ³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.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. ⁴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.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.

⁵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,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,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96(95), 1-2ㄱ. 2ㄴ-3. 7-8ㄱ. 10(◎ 3)

- ◎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.
-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를. 주님께 노래하여라, 온 세상아.
주님께 노래하여라, 그 이름 찬미하여라. ◎
- 나날이 선포하여라, 그분의 구원을. 전하여라,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,
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. ◎
- 주님께 드려라,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. 주님께 드려라, 영광과 권능을.
주님께 드려라, 그 이름의 영광을. ◎
- 겨레들에게 말하여라. “주님은 임금입니다.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
흔들리지 않고,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.”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4, 18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,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, 잡혀간
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수확할 것은 많은데, 일꾼은 적다.>

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0, 1-9

그때에 ¹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,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, ²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수확할 것은 많은데, 일꾼은 적다.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. ³ 가거라.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. ⁴ 돈주머니도, 여행 보따리도, 신발도 지니지 말고,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.

⁵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, 먼저 ‘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.’ 하고 말하여라. ⁶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,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.

⁷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,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. 일꾼이 품삷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.

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. ⁸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,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. ⁹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, ‘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.’ 하고 말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7일 연중 제3주간 목요일

제1독서 <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,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0, 19-25

¹⁹ 형제 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²⁰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. 곧,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. ²¹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. ²²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.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,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,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.

²³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.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. ²⁴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. ²⁵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, 서로 격려합시다. 여러분도 보다시피,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 시편 24(23), 1-2, 3-4, 5-6(◎ 6 참조)

- ◎ 주님,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입니다.
- 주님의 것이라네,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,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.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, 강 위에 굳히셨네. ◎
-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?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?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,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. ◎
-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.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. 이들이 야곱이라네. 그분을 찾는 세대,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. ◎

복음 환호송 시편 119(118), 105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,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<등불은 등경 위에 놓는다.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을 것이다.>

✠ 마르코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 4, 21-25

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?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? ²²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,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. ²³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.”

²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새겨들어라.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,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. ²⁵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,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8일 금요일

성 토마스 아퀴나스(토마스 데 아퀴노) 사제 학자 기념일

제1독서 <많은 싸움을 견디어 냈으니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.>

□□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0, 32-39

형제 여러분, ³²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. ³³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,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. ³⁴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,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.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

³⁵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.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줍니다. ³⁶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. ³⁷ “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. 지체하지 않으리라. ³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.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.” ³⁹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,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7(36), 3-4.5-6.23-24.39-40(◎ 39ㄱ)

- ◎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.
-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,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.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. 네 마음이 청하는 대로 그분이 주시리라. ◎
- 주님께 네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.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. 빛처럼 네 정의를 빛내시고,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. ◎
- 주님은 사람의 발걸음 지켜 주시며,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.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시니, 비틀거리도 쓰러지지 않으리라. ◎
-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,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.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,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,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마태 11,25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씨를 뿌려 놓으면, 자는 사이에 씨는 자라는데, 그 사람은 모른다.〉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4,26-34

그때에 ²⁶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

“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.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, ²⁷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,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. ²⁸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, 처음에는 줄기가,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,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. ²⁹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댈다.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.”

³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. “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?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? ³¹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.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. ³²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,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

된다.”

³³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,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. ³⁴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.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29일 연중 제3주간 토요일

제1독서 〈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〉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

11,1-2.8-19

형제 여러분, ¹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,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. ²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

⁸ 믿음으로써,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.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. ⁹ 믿음으로써,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,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. ¹⁰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

¹¹ 믿음으로써,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 데다, 나이까지 지났는데도,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.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. ¹²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,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,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,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.

¹³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.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, 멀리서 그것을 보고 만났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. ¹⁴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,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. ¹⁵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,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. ¹⁶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,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

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

¹⁷ 믿음으로써,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악을 바쳤습니다.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. ¹⁸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, “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¹⁹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루카 1,69-70.71-72.73-75(◎ 68 참조)

- ◎ 찬미받으소서,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. 주님은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.
- 우리를 위하여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힘센 구원자를 세워 주셨네.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. ◎
- 우리 원수들에게서,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, 우리를 구원하시리라. 그분은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,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네. ◎
-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,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풀려나, 아무 두려움 없이,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게 하셨네. ◎

복음 환호송

요한 3,16

- ◎ 알렐루야.
-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,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?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4,35-41

³⁵ 그날 저녁이 되자,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, “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.” 하고 말씀하셨다. ³⁶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,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,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.

³⁷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,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. ³⁸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.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, “스승님,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?” 하고 말하였다. ³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,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, “잠잠해져라. 조용히 하여라!” 하시니,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.

⁴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, “왜 겁을 내느냐?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?” 하고 말씀하셨다. ⁴¹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. “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?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30일
연중 제4주일
(해외 원조 주일)

제1독서 〈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.〉

▮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. 2, 3; 3, 12-13

³ 주님을 찾아라,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! 의로움을 찾아라. 겸손함을 찾아라.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.

^{3, 12}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,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. ¹³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,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, 그들 입에서는 사기 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.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,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46(145), 6ㄷ-7. 8-9ㄱ. 9ㄴ-10(◎ 마태 5, 3)

◎ 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네.

○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,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,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.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. ◎

○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,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.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,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. ◎

○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,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.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. 시온아,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. ◎

제2독서 〈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〉

▮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 1, 26-31

²⁶ 형제 여러분,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. 속된 기준으로 보아,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,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,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니다. ²⁷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 ²⁸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, 이 세상의

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,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.²⁹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.

³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,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.³¹ 그래서 성경에도 “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.”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5,12ㄴ

◎ 알렐루야.

○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

◎ 알렐루야.

복 음 〈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〉

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1-12ㄴ

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.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,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. ²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.

³ “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⁴ 행복하여라, 슬퍼하는 사람들!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.

⁵ 행복하여라, 온유한 사람들!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.

⁶ 행복하여라,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!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.

⁷ 행복하여라, 자비로운 사람들!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.

⁸ 행복하여라,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.

⁹ 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.

¹⁰ 행복하여라,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¹¹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,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, 너희는 행복하다! ¹²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1월 31일 월요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

제1독서 <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십니다.>

▮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1,32-40

형제 여러분, ³²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? 기드온, 바락, 삼손, 입타, 다윗과 사무엘,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. ³³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,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, ³⁴ 맹렬한 불을 켜고 칼날을 벗어났으며, 약하였지만 강해졌고,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. ³⁵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.

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,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. ³⁶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,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. ³⁷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,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,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.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,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. ³⁸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.

³⁹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,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. ⁴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,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31(30), 20.21.22.23.24(◎ 25)

- ◎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. 힘을 내어라, 마음을 굳게 가져라.
-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, 얼마나 크시옵니까!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. ◎
-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시고,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구설에서 구하시나이다. ◎
- 포위된 성읍에서 당신 자애로 내게 기적을 베푸셨으니, 주님은 찬미받으소서. ◎

- 겁에 질린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나이다. “저는 당신 눈앞에서 쫓겨났나이다.” 그러나 당신께 도움 청할 때, 애원하는 제 소리 들어 주셨나이다.
- ◎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. 힘을 내어라, 마음을 굳게 가져라.
- 주님께 충실한 모든 이들아, 주님을 사랑하여라. 주님은 진실한 이들은 지켜 주시나, 거만한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7,16

- ◎ 알렐루야.
-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.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 <더러운 영아,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.>

✠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5,1-20

그때에 ¹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. ²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,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. ³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,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. ⁴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,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,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. ⁵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,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.

⁶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, ⁷ 큰 소리로 “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,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.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.” 하고 외쳤다. ⁸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더러운 영아,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.”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.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네 이름이 무엇이냐?” 하고 물으시자, 그가 “제 이름은 군대입니다.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였다. ¹⁰ 그리고 나서,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.

¹¹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. ¹²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, “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.” 하고 청하였다. ¹³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,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. 그러자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

비탈을 내리 달려,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.

¹⁴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.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. ¹⁵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, 마귀 들렸던 사람,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. ¹⁶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. ¹⁷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.

¹⁸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,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. ¹⁹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,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, 주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.” ²⁰ 그래서 그는 물러가,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.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